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6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천만군민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신 불멸의 업적

혁명적사상봉세의 불길드높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7 5(1986)년 7월 15일에 발표하신 이 편작은 우리 당사장교양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고 천만군민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성을 신념과의 리로 간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문득히 준비시키기 위한 고귀한 지침을 마련한 기념비적 문헌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에 의거함으로써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혁명위임을 끔嗟까지 완성해나갈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여고 주체사주의 구현하고 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사회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윤리와 관련되는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천만군민을 영도자와 사상과 숨결, 발걸음을 같이하며 사회주의의 유행을 위하여 꽂까지 봐워나가는 참된 혁명가로 키울수 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수십년간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불멸의 혁명가,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로 성장해온 나날이었다. 일찌기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만능의 무기로 들어쥐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설적사상을 사랑하는 빛나이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상교양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방향과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임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조작들을 발표하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사상교양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혁명의 진리를 향유하는 길에는 김정은동지께서도 혼들림없이 담을 따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끌어올수 있었던 것은 사상사업선행의 원칙을 중심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전제 당원들과 군로자들을 시상과 신념의 정착, 견절한 혁명투사들로 억새끼시키우고있다. 5대교양사업이 강도높게 벌어지는 속에서 천만군민이 투철한 혁명보위정신과 견절한 사회주의 수호정신을 지니고 길원성민족의 위대한 성실성으로 거청한 번역의 뿐마를 창조해나가고있는것이 오늘의 장엄한 현실이다. 이것은 혁명령도의 천기간 주체사상교양을 즐차 대한 사업으로 틀어주시고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사상증시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짚어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억척같이 다져지게 되었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인 우리의 일심단결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작에서 일민에게 주제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영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일심단결은 정치사상강국으로 존립하는 우리 조국의 제일극학이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파 숭고한 도덕의리로 굳게 통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보로 된다.

일찌기 하나의 사상, 하나님의 중심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사상을 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파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를 실현하는데 온갖 힘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사상교양사업의 출발적 기초와 원칙, 내용을 절두칠이 주제사상교양으로 일관시켜나가도록 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수많은 문학예술작품들과 사상교양자료들을 몽소 보아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았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며 온갖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헤쳐나가야 하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신념이다. 신념으로 짚는 길이 혁명의 길, 사회주의의 길이며 신념을 더욱 억세게 벼려주는것이 바로 사상교양

위업수행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한순 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사상증시의 역사를 아로새겨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비본적지와 정직적인 영도의 자족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는 험준한 험수 없

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으로작들을 더미고 새운기록과 함께 『사회주의』에 실시하고 신천박판을 찾으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두절한 계급적각오를 실증깊이 세기도록 이끌어 려도 영도자의 두려움 천겸한경의 성새를 이루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절대로 깨뜨릴수 없다는것을 투렷이 보여주었다.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철학적우월성을 바로 사상의 우월성에 있으며 천만군민이 사상의지적으로 크게 풍물에 천개의 일심단결이 이말로 우리당의 불멸의 힘의 원천이다.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만군민을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창다운 애국자로 키우신데 있다.

주체는 애국이고 애국은 주체이다. 천만의 심장에서 높뛰는 주체의 피는 애국의 피이고 천만이 높이 둡 주체의 기치는 애국의 기치이며 천만이 풍랑과 격랑을 헤치면서 우리 인민은 주체의 향로는 애국의 향로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떨리는 모른 뿐은 주체로 일관된 애국주장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따라 천하제일 강국을 향하여 만리마속도로 기세차게 솟구쳐 오르고 있다. 온 나라에 뻔진지는 김정일에 국주의 열풍속에 누구나 말리미기수가 되어 당 제 7대 회

절정판결을 위한 충정의 2000일 전투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한 자력자강의 창조물들과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지는 충전포성은 우리 천만군민의 애국심이 얼마나 열렬한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 아래 자라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밑에 전진하는 수천수만의 애국자들이 여기서였다. 사회주의의 적극주의교양을 이바지하는 문학에 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도록 하시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연혁사를 통한 교양사업을 당과 수령의 위대성교양, 애국주의교양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진행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의 자족은 혁명하게 이끄시였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실장마다에는 죽어도 살아도 내나파, 내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써워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팔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그대로 맥박치고 있다.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걸 쌓아 있다고 하여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믿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학의 신념을 암고 당정책을 세웠다는 걸 사관철해나가는것은 우리 천만군민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울창한 수령과 면뜻하게 정의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부강번영 할 조국의 데일과 대대 손순 누며 잘 우리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고려보시며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 조용히 외우기도 하시였고 외국방문의 경에 계실 때에는 두고온 조국과 인민들이 그리워 내나파, 내민족이라고 감회깊이 불러보곤 하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입고계시던 단발총은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실장속에 철새위인의 애국의 냇과 신념을 깊이 세겨주고 있다.

오늘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따라 천하제일 강국을 향하여 만리마속도로 기세차게 솟구쳐 오르고 있다. 온 나라에 뻔진지는 김정일에 국주의 열풍속에 누구나 말리미기수가 되어 당 제 7대 회

절정판결을 위한 충정의 2000일 전투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한 자력자강의 창조물들과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지는 충전포성은 우리 천만군민의 애국심이 얼마나 열렬한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 아래 자라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밑에 전진하는 수천수만의 애국자들이 여기서였다. 모든 당원들과 군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를 충직하게 밟들이 우리 조국을 세우며 부려워하는 천하제일 강국으로 빛내어 나가는데서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윤 철희

전승세대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자

려명거리전설장에

전시가요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의 투쟁

아침짜 저녁이 다르고 오늘짜
레일이 다르게 변모되는 펴여진
전설장에서 전시가요《조국보위
의 노래》가 휘파람에 울려퍼지고
있다.

우리의 영웅한 인민군인들은
떠명거리건설도 사회주의 수호전
이라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전투장
마다에서 전투적 기백과 절승의
신령, 불타는 조국애를 담은 전시
가요를 부르며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다.

위대한 봉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이 점령하면 우리는 한
다는 구호를 들고 최고사령관
의 명령을 험사관할하는 혁명
기품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것도 인민군대의 조국보위
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밟아
하겠다는 신념과 의지로 인민
경제의 주요전선에서 뛰파구를
뛰고 로격적위훈을 펼쳐가고
있는 것도 다름이 아닙니다. 인민군대
입니다.》

떠명거리건설장에 인민군인
들이 떨어진 것은 불과 몇발전이
었다. 이 날 우리 미녀들은 인
민군인들은 배두산혁명강군의
불굴의 기상을 떨쳐내며 5·6·7·
5·0·총초고총살포럼을 비롯한
수십동에 달하는 살립립립조공사
를 날에 헤쳐들여 기적창조의
날과 날을 이어왔다.

이들에는 풍부한 경험이 있고
공사조건이 낫다며 좋아서가 아니
었다. 고충, 초고총살포럼은 내놓
고서라도 살립립립조공사체가 처음

인 군인들이 대부분이었다. 모든
것이 손에 걸고 눈에도 살이 살
립립립조공사를 처음 시작하였을
언데 이어 대성 5·1~4·4·호통
7·0·총초고총살립립조전설장
에서 힘차게 울려퍼진 대합동공
연은 우리 인민군인건설자들의
심장의 불은 미를 혁명열, 투쟁열
로 끓여버리자 하는 빛으로, 위훈
창조의 원동력으로 되었다. 그것
은 그대로 온 전설장에 새롭게
태어난 빛마디도창조의 활화산
같은 불길이 되었다.

떠명거리건설에 참가한 조선
인민군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사상
장군의 위력을 날길들이 파시하며

조선인민군 김봉준소속부대와
김경훈소속부대의 군악대 함께 공
연에 이어 대성 5·1~4·4·호통
7·0·총초고총살립립조전설장
에서 힘차게 울려퍼진 대합동공
연은 우리 인민군인건설자들의
심장의 불은 미를 혁명열, 투쟁열
로 끓여버리자 하는 빛으로, 위훈
창조의 원동력으로 되었다. 그것
은 그대로 온 전설장에 새롭게
태어난 빛마디도창조의 활화산
같은 불길이 되었다.

조선인민군 김봉준소속부대 군인
건설자들은 조국을 담은 전시
가요를 부르며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다.

부대 당 조직에서는 때여행에
달하는 군악대《조국보위의 노
래》를 비롯한 전시가요들로
전설장을 들었다는 화선무대를
펼치도록 함으로써 전투장에 애국
옹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세워지며 벌어지고 있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를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은 거의 매일
이다시이 행진되곤 하였다.

흔합을 한데만마다에 지휘
관과 병사들의 후데를 땅과
술들이 그대로 끌어내어 끌고온
한민족의 치어와 유행았으며 15일
밤 10시 3·0·총살립립조우에
기어이 승리의 뿐은기는 끊고야
말았다.

기적창조로 수놓아진 군인건설
자들이 말은 살립립립조전설장
에서 이런 화선공연

우리 어린이들을 유피랍치하려던 괴뢰정보원 앞잡이

국내외기자회견에서 범죄 행위자 백

한·공화국의 죄악을 감행하던 적발세포된 괴뢰정보원일 잡이인 국내외 기자, 외신 기자회견이 1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는 우리 나라 출판 보도부문과 총련의 기자들, 외신 기자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로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고현진이 전승하였다.

그는 조국을 배반한 죄인으로

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몸

이지만 조국을 경악하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당의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책 등을 폭로하지 않고서는 결코 없어 기자회견을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정안부도 정주시에서 출

생하여 월남도주하기 전까지 신

제 나이는 53살이다.

먼저 내가 남조선으로 도주하게 된 경위를 말하였다.

신의 주시에서 동로자로 일하

던 나는 개인의 안락함을 추구

하면서 나머지 이웃 사람들에게 국가의 법질서를 위반하고 일상

밀매행위를 하다니 밭되어 법

기판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늦거나마자 자신의 죄과를 뒤워

침대신 어려운데 법적제재를

피해보려고 2013년 1월 26일

부임선을 타고 알록강으로 나가

게 전 기회에 중국 단동으로 도

주하였다.

나는 이미 전부터 면제를 가지

고였던 마가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숨어 살았다.

하루는 내가 숨어 사는 집과

제거해버린 용가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가 나에게 돈을 벌수 있는

여러저러한 일들을 알선해 주었

으나 어느 하나도 시원하게 되

는 것이 없었다.

그러면 어느 날 나는 총기의 소

개로 단동에서 사는 리성수라는

남조선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는 나에게 남조선에 가

면 마음편히 살수 있다. 얼마전

에도 당시와 같은 사람들을 보

내주는데 지금 모두 잘살고 있다

고 하는것이었다.

나는 괴뢰정보원들을 따라

남조선으로 가는 길이 조국을

빼앗는 반역의 길이라는 생각

에 선뜻 그자의 요구에 응할수

없었다.

그러나 남조선에 가면 많은

돈을 준다는 리성수의 말에

문내 험혹여 그의 요구대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였다.

며칠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는

데 매달 문을 하라고 하면서 차를 보내겠으니 시키는데로 하

라고 하는것이었다.

2014년 2월 28일 8시경 나는

낮모를 놀들에게 끌려 비행

수들이 짜증으로 단동을 떠나

시내 심양, 청도, 편명을 거쳐

3국에 이르렀으며 거기서 그곳

생활에 단속되어 밀입국자로 기

소되었다.

그 후 제4회를 받고 그 나라에

있는 『국제 이민 국수용소』라

는 곳에 이동되었다.

어느날 그 나라 주제 남조선괴

괴뢰사관에서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나와 쇠조를 하였다.

그들이 국적증과 허위증

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나는 최성우의 지명에 따라 중

국 단동에 드나들면서 임무를 수

행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다.

최성우는 지난 3월 8일 나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다.

그자는 최근 북에서 축산과

농업으로 국적증과 허위증

을 제공하는 것을

